

雁鴨池 (慶州) 에서出土한 馬의 遺骸에 대하여

毛 麒 結

慶北大學校 農科大學 獸醫學科

Morphological Examination on the Horse Remains Excavated from An Up Pond in Kyungzu.

Mo, Ki Choul

Dept. of Vet, Med, Coll. of Agric., Kyungpook Natl. Univ.

Summary

A number of the remains of animals were unearthed from Anup pond in Kyungzu during the repair work in March, 1975. To determine the species of animal origin and the ages and sexes of them, some judgement and morphological examination of the animal remai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ith the bone remains believed to be of horses are summarized as follow.

1. The total of the remains of horses excavated were 28 teeth and 9 pieces of bones. The bones were classified into on each of skull, humerus, radius, the first phalanx, femur and tibia, the remaining 3 pieces being cervical vertebrae.
2. The cranial bone was relatively in fair preservation and, on the whole, the gross appearance was quite similar to that of current Korean native horses. With the defacement of the teeth, the horse remains could be of a mare with the age less than 10 years.
3. The size of the appendicular skeletons were a bit smaller than that of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4.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resent study strongly indicated that the horse remains excavated from the An up pond could be of at least 2 or more horses.

緒 論

新羅 古都 慶州의 雁鴨池를 1975年 補修할 때 池底와 池底 土中에서 各種 遺物과 함께 出土한 哺乳動物과 鳥類의 遺骸들을 慶州文化財研究所의 依賴로 分類

鑑定 하였든바, 其中 馬의 遺骸로 判別되는 것은 骨遺骸 9點과 齒牙 28點이 있었다. 著者는 이들을 分類 鑑定하고 現存 在來種 馬의 그것들과 比較 觀察한 結果를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雁鴨池는 新羅 文武王 在位中(AD661~681) 築造된

人工湖이며 臨海殿 앞뜰에 位置하였고 新羅의 國土를 模型하였으며 湖畔은 王族과 當時의 貴族들의 宴會場으로 供用된 場所였다고 한다.

結果 및 考察

出土된 馬의 骨遺骸로 判別이 可能한 9點 以外에 骨盤骨(Hih bone)의 小骨片도 있었으나 馬의 骨盤骨片으로 判定하기에는 未洽하기에 除外하였다. 이들을 各遺骸別로 分類 記述하면 아래와 같다.

1. 頭蓋骨 (Skull)

上下顎骨이 完備된 狀態에서 1點이 出土하였으며 그 保全狀態는 比較의 良好한 便으로 거의 原形에 가까운 狀態였다. 다만 舌骨은 完全 脫落되어 볼수 없었으며

頭頂骨, 鼻甲升骨, 節骨도 거의 消失되었고 前頭骨과 口蓋骨은 部分的으로 保有하고 있었다.

頭蓋骨의 크기와 形態는 現存 우리나라 在來種馬의 그것과 大同小異하였으며 이로 미뤄 볼때 現存 在來馬와 거의 同型의 小型馬의 것으로 推定된다.

上下顎에 犬齒가 있는 것으로 보아 鬣馬(鬃)이며 上顎 右側齒列의 第1臼齒(P1)인 狼齒(wolf teeth)의 脫落된 痕跡이 있었다.

切齒의 磨滅程度는 저작面列의 모양이 半月狀을 이루고 孤가 열은 便이며 저작面은 不完全하나마 三角形을 形成하고 있으며 特히 鉗齒(中央部 切齒)는 孤가 거의 完全에 가까운 三角形인 것으로 미루어 볼때 拾才 未滿의 壯馬로 推定된다 (Fig.1,2,3).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horse remains

Kind of the Bones	Numbers	Note
Skull	1	
Cervical vertebrae	3	
Humerus	1	
Radius	1	
First phalanx	1	
Femur	1	
Tibia	1	
Teeth	28	Molar 27, incisor 1
Total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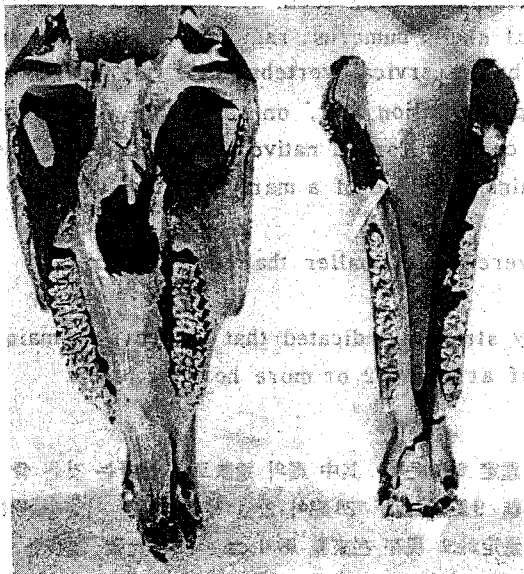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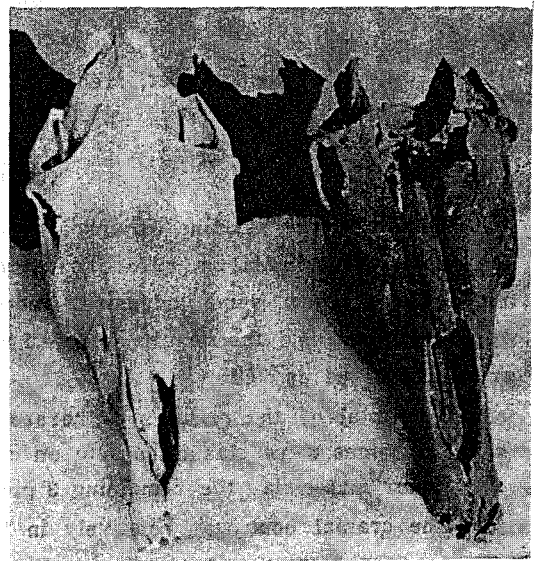


Fig. 1. Skull (Ventral aspect) : Remain



**Fig. 2. Skull (Dorsal aspect)
Left :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Right : Remain**



Fig. 3. Incisor tooth of Remain

2. 頸椎 (Cervical vertebrae)

3 點의 椎骨이 出土하였으며 이들 3 點이 頸椎였으며 中位 以下の 後位의 것이며 그中 2 點은 原形에 가까운 狀態였으나 1 點은 腐蝕이 甚하였다. 그 크기로 미루어 現存 在來馬 程度의 體驅의 小型馬의 것으로 推定된다 (Fig.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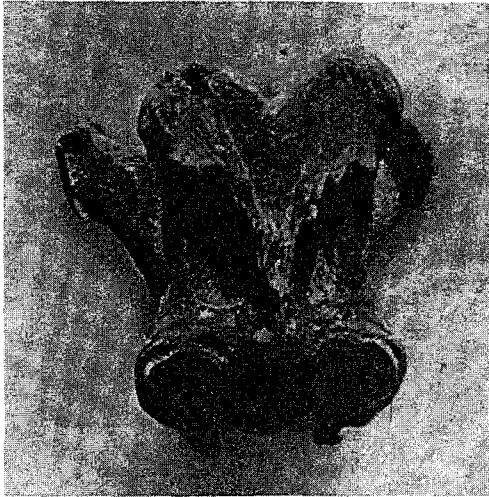


Fig. 4. Cervical vertebrae (Ventral aspect) : Remain



Fig. 5. Cervical vertebrae (Lateral aspect) : Remain

3. 上腕骨 (Humerus)

1 點이 出土하였으며 大體로 原形을 保存하고 있었



Fig. 6. First phalanx: Remain



Fig. 7. Humerus: Remain

으나 骨體部의 腐蝕이 甚한 狀態였다. 骨長은 約 25.0 cm, 骨體部의 둘레는 約 15.0 cm (圓筋粗面과 三角筋粗面의 中間部 測定)였고 이를 現存 우리나라 在來馬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骨長이 約 2.5 cm 짧았고 (短) 骨體部 둘레는 約 0.3 cm 정도 가늘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現存 在來馬보다 多小 小軀의 馬體의 것으로 推定된다 (Fig.8).



Fig. 8. Humerus : Left : Remain, Right :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4. 橈骨(Radius)

前腕骨(Bones of Forearm)에서 尺骨(Ulna)는 脫落하여 볼수 없었고 橈骨(Radius)만이 保全되어 있었으며 이것도 近位와 遠位の 骨端部는 完全 脫落되었으며 骨體部만이 保全되어 있었다.

近位 및 遠位端을 包含한 橈骨 全體의 길이(長)은 正確히 알 수 없었으나 推定值로 推算하여 볼때 約 30.0 cm 정도로 보이며 骨體部의 둘레는 約 10.0 cm였다. 이를 現存 在來馬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骨長이 約 2.0 cm 정도 짧았으며 (短), 骨體部 둘레는 約 0.5~1.0 cm 정도 가늘었다. (細) 이로 미루어 볼때 現存 在來馬에 比하여 多小 小軀의 馬體의 것으로 推定된다 (Fig.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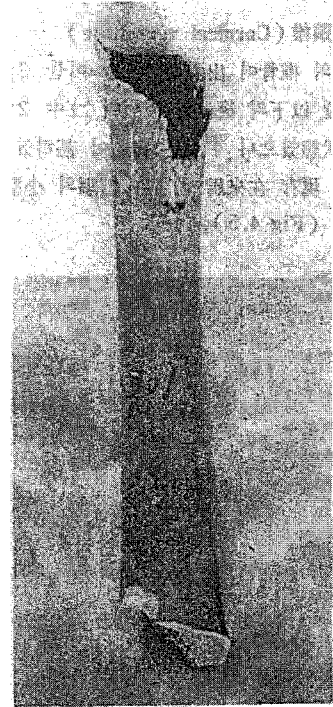


Fig. 9. Radius : Remain



Fig. 10. Radius : Left : Remain, Right :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5. 指骨(First phalanx)

第1 指骨이 1點 出土하였으며 左 右肢의 區分은 明確치 않았으나 保全狀態는 良好하여 原形 그대로였다 (Fig. 6).

6. 大腿骨(Femur)

近位端의 一部가 脫落되었을뿐 나머지 部分은 比較的 保全狀態가 良好한 便이었으나 大腿骨頭, 前, 後大轉子 및 小轉子는 完全 脫落되었다. 脫落部를 包含한 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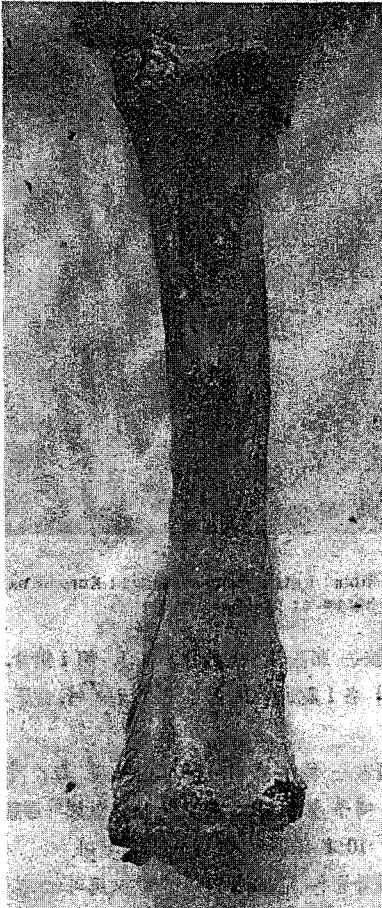


Fig. 11. Femur : Remain

의 推定値는 約 36.0 cm 정도였으며 骨體部의 둘레는 約 14.7 cm였다. 이를 現存 在來馬의 그것들과 比較하여 보면 前者는 2.5~3.0 cm 정도 짧았고(短) 後者는 0.3 cm 정도 가늘(細)었다. 따라서 이 亦是 現存 在來馬보다 多小 小軀의 馬體의 것으로 推定된다 (Fig. 13, 14).



Fig. 12. Femur : Left : Remain, Right :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7. 脛骨(Tibia)

下腿骨과 腓骨은 脫落하여 볼수 없었고 脛骨만이 保全되어 있었다. 脛骨의 近位端 周邊部의 一部가 脫落된 以外는 거의 完全한 狀態로 出土하였다.

骨長은 約 28.7 cm 이었고 骨體部의 둘레는 約 11.5 cm였다. 이를 現存 在來馬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骨長이 約 5.0 cm~5.5 cm 정도 짧았고(短) 骨體部 둘레도 約 0.5 cm 정도 가늘었다.(細) 따라서 脛骨도 現存 在來馬에 比하여 多少 小軀의 馬體의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前述한 大腿骨과 同一 個體의 것이냐의 與否는 確言할 수 없다 (Fig. 11, 12).



Fig. 13. Tibia : Remain

8. 齒牙(Teeth)

個別的으로 出土한 齒牙는 28 點이었으며 그 中 27 點이 臼齒이고 1 點이 切齒였으며 齒牙의 狀態로 미루어 볼때 壯馬의 것으로 推定된다.

摘 要

1975 年 3 月 慶州 雁鴨池 補修工事 當時 出土한 馬의 遺骸의 種類, 年令 및 性別 등을 鑑定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出土한 遺骸는 骨이 9 點 齒牙가 28 點이었다.



Fig. 14. Tibia : Left : Remain, Right : Korean native horse at present

이들 骨遺骸는 頭蓋骨, 上腕骨, 0 骨, 第 1 指骨, 大腿骨, 脛骨이 各 1 點式이고 脛椎가 3 點이며, 齒牙가 28 點이었다.

2. 頭蓋骨은 現存 우리나라 在來馬의 그것과 形態와 크기가 매우 類似하고 齒牙의 磨滅狀態와 形態로 미루어 볼때 10 才 未滿의 壯馬로 推定된다.

3. 四肢骨들은 現存 우리나라 在來馬의 그것들보다 多小 倭小한 體軀의 馬體의 것으로 推定된다.

4. 遺骸들의 鑑定 結果 2 頭 以上の 馬體의 것들로 推定된다.